

44 北學議 북학의

1947년 / 박제가(朴齊家) / 79면 / 14.20-12 박73북 1947

이 책은 실학자인 박제가의 저작인데 1947년 10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출간했다. 당시의 도학파(道學派)들이 명나라를 숭배하는 대의명분론자들이라면 실학파는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자들이다. 전자가 현실을 피하고 관념론으로 시종할 때 후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를 개량하자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실학파는 남인 출신의 양반인데 적어도 영정조(英正祖)대에는 도학파의 누구도 실학파를 당해내지 못하였다. 이 당시 실학파의 거두로는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儻), 홍대용(洪大容) 및 홍양호(洪良浩), 신경준(申景濬) 등 제제다사(濟濟多士)하였기 때문이다.

『北學議(북학의)』는 내용에 있어 교통론을 기초로 한 일종의 상업경제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0편에 달하는 교통에 관한 논술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박제가는 말하기를 “상업이 발전하려면 교통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통이 발달하려면 용차(用車)와 용선(用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그는 “우리나라는 동서가 천리이고 남북은 그 3배다. 그 가운데 수도가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모여드는 물질의 운반거리는 500리에 불과하고 세로로는 1,000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바다에서 가까운 곳은 각기 배로

통행하고, 육지에서 통상하는 자는 짐작컨대 서울까지는 멀어도 5~6일 정(程)에 불과한 것이고 가까우면 2~3일 정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한쪽에서 저쪽 끝까지 간다면 날짜는 곱이 걸릴 것이다. 만일 걸음 잘 걷는 사람을 각 처에 배치한다면 사방의 모든 물가의 높고 낮은 것은 며칠 안에 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메산골에서는 산사(山査)를 담가서 그 신맛을 메주 대용으로 쓰는 자가 있으며, 또 새우젓이나 조개젓을 보고는 이상한 물건이라 한다. 그 가난함이 이와 같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수레(車)가 없는 까닭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박제가는 일본의 德川(도쿠가와)가 “… 물건 싣기를 제한 없이 해서 소나 말이 많이 상한다. 이것은 어진 사람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까지 소개하고 있다.

박제가는 4회에 걸쳐 중국의 심양(瀋陽)과 북경 등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도로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 책에 수록하고 있다.